

# 이주여성 친정마을 감동시킨 '광주 온정'

### 희망나무 봉사팀, 캄보디아서 의료봉사 돈보기 나눠주고 마을 방역활동도 벌여

광주의 온정이 캄보디아 이주여성의 친정마을을 감동시켰다. 머나먼 미국 땅 한국으로 어린 딸을 시집보내고 그동안 가슴 졸여왔던 친정 가족과 마을주민들은 광주서 찾아온 봉사팀의 진료와 방역활동 등에 감사와 존경을 표시했다.

다문화가정 지원 봉사단체인 (사) 희망나무(이사장 류한호 광주대교수) 봉사팀은 지난 15~16일, 광주서 무려 5000km가량 떨어진 캄보디아 이주여성 캄소피아(29)시의 친정마을인 크라체주 프랙프로수 아우롬마을에서 의료봉사활동을 벌였다. 캄소피아의 친정마을은 수도 프놈펜에서 차량과 선박을 이용해 8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폐교장 주변의 오지마을이다.

봉사팀은 이곳에서 진료를 비롯한 방역, 미용, 영화 상영, 교육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미르치와 박성인·김현석 원장과 아이안과 서정성 원장, 광주병원 김명수 원장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의료진과 16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건기 탓에 36~37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날씨가 바빠달리는 강한 흠뻑까지 싸우며 이틀간 5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평소 병원을 찾을 수 없는 오지마을인 탓에 한국서 의료진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진료소가 마련된 불교사원은 삼시간에 장사진을 이뤘다. 그동안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한 고질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 의료진들이 상당한 애를 먹기도 했다.

다비치안경 김민규 대표도 자원봉사자로 참석해 돌보기 500여개를 무료로 주민들에게 나눠줬고, (주)태두이경호 대표는 이틀간 직접 마을 방역활동을 벌였다.

이번 봉사활동에 처음 참여한 박인화 광주서시의 교육위원장은 초등학교 교장 출신답게 현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받았다. 아이들은 처음 본 색색이 크레파스를 받아주고 하얀 스키치북에 자신의 얼굴을 그리며 정체를 찾는 프로그램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

캄소피아의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신세를 진 것 같다"며 "친정식구 뿐 아니라 마을주민들 모두가 한국에, 그리고 시택인 광주에 고마움과 감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 5년째 이주여성 친정마을 방문 및 의료봉사활동을 이주여성의 모국과 지역주민들에게



15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의료 봉사를 펼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 봉사단체 '희망나무'의 서정성(아이안과) 원장이 안과수술을 하고 있다.

과 감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나무 봉사팀은 18일 캄

보디아 수도 프놈펜 현지에서 광주시와 프놈펜시 관계자들과 함께 '광주 오월 진료소'(가칭) 개설을 위한 실무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희망나무 봉사팀은 18일 캄

보디아 수도 프놈펜 현지에서 광주시와 프놈펜시 관계자들과 함께 '광주 오월 진료소'(가칭) 개설을 위한 실무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희망나무 봉사팀은 18일 캄

## 北, 연내 1~2차례 추가 핵실험계획 중에 전달

### 4차 핵실험 10kt 추정... 무수단리 또 로켓발사 움직임

북한이 연내에 핵실험을 1~2차례 더 실시할 계획임을 핵심 동맹국인 중국에 전달했다고 북한과 중국의 외교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한 소식통이 15일 밝혔다.

북한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이 소식통은 북한이 미국으로 하여금 회담이 나서게 하려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소식통은 "모든 게 준비된 상태"라며 "4차·5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가 곧, 아마도 올해 안에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4차 핵실험은 3차 때보다 큰 10킬로톤(kt·TNT 1만t)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 시도로 보이는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과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는 아버지(김정일 국방위원장)보다 훨씬 더 강경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로켓 발사장에서 또 다른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듯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인 '38노스(38 North)'는 14일(현지시간) "무수단리의 동해 위성발사장 건설작업이 지난해 여름 태풍 피해로 차질을 빚었으나 최근 중요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상업위성 업체인 '디지털 글로벌(Digital Global)'가 지난달 촬영한 위성사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발사장의 크레인 위치가 바뀌고 골조물 인근의 눈이 치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38노스는 액체연료 로켓의 시험발사가 임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작업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측의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 하루 전인 지난 1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신형 장거리 미사일 'KN-08'의 엔진 성능개량 시험을 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은 시험발사한 적이 없는 KN-08의 사거리를 ICBM급인 5000km 이상으로 확실하게 늘리려고 엔진시험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엔진 성능개량시험이 성공했다고 판단하면 본격적으로 실전배치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작년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태양절)을 기념해 열린 군사 퍼레이드에서 6기가 공개된 이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됐지만 아직 한 번도 시험발사된 적이 없다.

## 대통령 취임식 '국민대통합 축제형'으로

### 참석자 7만명으로 늘려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은 7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국민대통합에 초점을 맞춰 '국민과 하나 되는 축제'로 꾸며진다.

17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에서 따르면 취임식 참석 인원이 예초 6만명에서 7만명으로 늘었다.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 8만9000명의 신청이 쇄도했기 때문이라고 취임준비위는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약 5만명이 참석한 것과 비교하면 참석자가 2만명 많아졌다.

◇'보신각 타종'으로 임기 개시=박 당선인의 취임식 행사는 오는 25일 오전 0시 서울 보신각 타종으로 시작한다. '대통합'과 '희망의 새시대'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전국 17개 시·도 대표와 탈북주민, 18대 대통령을 상징하는 국민대표 18명이 보신각종을 33회 울린다.

보신각 앞에서는 앞서 24일 오후부터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싶은 국민의 목소리를 '희망달집'에 담은 행사가 열리고, 이날 밤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희망 민생 토크'가 진행된다. 타종 행사 후에는 강강술래 전통놀이와 함께 참석자들이 강강술래 놀이를 한다.

◇취임식=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현충원 참배로 일과를 시작한다. 현충원 참배에는 정부 대표뿐 아니라 현충원 안장 유가족, 국가유공자 등 35명이 함께한다.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리는 취임식은 식전행사와 본행사로 나뉜다. 식전행사는 오전 9시20분부터 열린다.

'개그콘서트' 팀이 MC를 맡고,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길놀이 공연, 김영임 명창의 합동공연이 펼쳐진다. 세계적인 스타 발동음악 가수 사이는 희망과 행복을 주제로 직접 가사를 바꾼 '강남스타일'과 '렐리언'을 부른다.

## 기자 노트

### 법원, 공정한 틀을 고민하라

"법원의 다양한 가치관과 독립성은 인정돼야 합니다. 내외부에서 어떤 형태의 압력이나 비판으로 인해 판결이 좌지우지되는는 아닙니다."(관사)

"관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철학과 인적 관계 등이 너무 크게 관여되고 있습니다. 재량이 남용되고 있는 겁니다."(검사)

"성실하게 자신의 말은 바를 묵묵히 하고 있는 지역법관들의 자괴감이 심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변호사)

있었다. 특히 이 제도 이후 지역 법관들은 중앙의 정치권력은 물론 그동안의 관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판단을 내려 신중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이 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최근 들어 자주 불거지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만 장기간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학연 등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판결의 공정함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일부의 경우 이같은 오해를 받기 충분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전면에 우로 대표되는 법조계의 해묵은 난제의 연장선상일 수 있다. 즉 인사 때마다 법관들의 근무처를 다른 지역으로 바꾼다고 해도 판결의 불공평 논란은 사라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현석 사회2부차장

시민들은 대체로 법원이 변화에 둔감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무리 소송을 강조하고 친절하게 미소짓더라도 재판 당사자, 더 나아가 국민이 판결의 공정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 논란을 그저 제도의 잘못, 일부 관공의 잘못 정도로 치부하기보다는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법원의 가치관과 재량권을 어떻게 공정한 틀 속에 담아낼지를 법원이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한다.

/chadol@kwangju.co.kr

## 주민 직접 만나 현장행정 실현

### 노회용 동구청장

노회용 광주시 동구청장이 18일부터 3월14일까지 13개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 주민들과 만나다.

광주시 동구청은 17일 노회용 구청장이 취임 이후 첫 번째로 주민들과 직접 만나 구청 방향을 논의하는 2013년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아시아 문화전당 3대색 사업, 도심형 예술촌 조성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민 일자리 창출사업, 창조마을



구성장과 주민이 함께 토론하는 자유로운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노회용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 이웃집 아저씨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현장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 경매 · 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임) 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률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률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아지않고도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시군정말) 광주 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이서 hankookland로검색

부동산, 팔리지 않아 고민하십니까?  
사고 싶은데 마땅한 매물이 없으십니까?

고객님의 고민을  
솔로몬 공인중개사가  
속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매

- '담양' 무인텔  
- 객 실 : 32개  
- 현 상업중  
- 매매가 상당후 결정

전남 지역  
토지 구함

- 양어장(노지)  
- 염전  
- 잡종지  
- 학교용지(폐교)

각 토지 매수자 대기중  
※ 염전 실운영자 대기중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원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설분과 영입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중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재(전남권)